

동인음악학원 한순희 권사(예수비전교회)의 따뜻한 이야기



2013년 여름,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제가 C채널방송을 통해 큰 은혜를 받고 있어서 후원하려고 전화했어요.'라고 수줍게 말씀하셨던 한순희 권사님과의 통화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다. 요즘은 '오직 주 만이'를 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큰 사랑에 매일 감동 중이라는 권사님. 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남은 삶 동안 더욱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노력하는 예수비전교회 한순희 권사님을 만나보았다.

올해 3년째 후원 중이세요. 방송선교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나이가 한 살씩 들어가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제대로 된 실천을 못 하고 있던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해외 아동 돕기 등의 후원은 하고 있었는데 선교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막내딸이 자비량 선교로 헌신하면서 선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딸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23살에 스페인으로 선교를 떠났어요. 처음에는 엄청 반대했죠. 후원 교회도 없고, 특별한 기술이나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선교사의 길을 가버린거라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런데 우리 딸이 아프고 힘든데도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 선교현장을 지키더라고요. 또 삶을 바쳐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을 구원한 이야기를 직접 들으니 선교가 정말 중요하고 귀하다는 것임을 체득했어요.

저는 집에 있을 땐 꼭 기독교방송을 시청하는데, 방송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일도 정말 중요하고 값진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또한 C채널방송의 설교나 프로그램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



대하심에 대해 다시금 깨닫고 있거든요. 방송콘텐츠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했더니 저절로 후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권사님이 가장 즐겨보는 C채널방송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저는 방송설교를 자주 들어요. 여러 목사님의 다양한 은혜의 말씀을 안방에서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꼭 챙겨보는 프로그램이 '오직 주 만이'예요. 삶에서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평안함과 위로함을 얻은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저절로 눈물이 나요. 그 분들의 간증이 때로는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에 대해 인정하고,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매일 기도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송을 볼 때마다 그 감동이 동일하게 느껴져요.

매일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권사님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신가요

저희 남편이 올 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제가 30년 넘게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는데 남편의 마음이 드디어 움직였어요. 처음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빨리 들어주지 않으시는 걸까'라는 원망 섞인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게 기도 뿐이었기에 꾸준히 기도했어요. 또 우리 막내딸이 마약에 빠진 대학생에게 복음을 전해서 현재 그 분이 전도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간증을 들려줬는데,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씩 마음을 연 것 같아요. 작년에 막내딸이 현지 선교사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처음엔 크게 반대했는데 결국 허락해주고, 축복해줬거든요.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결국 축복이 된다는 걸 크게 느꼈어요. 요즘은 우리 남편이 사도바울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도바울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 남편이 복음의 통로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이를 통해 친척들도 모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좋겠어요.

삶에서 크리스천의 삶을 어떻게 실천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그럼 분명히 자세가 달라져요. 말이나 행동이 내 생각이나 욕심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를 통해 원생들에게나 선생님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어요. 또 상대편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해요. 학부모님들과 상담하다보면 간혹 어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결국 축복이 된다는 것”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머님의 마음을 위로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머님들도 웃으면서 돌아가실 때도 많아요.

좋아하는 찬양은 어떤 곡이신가요.

저는 찬송가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을 매일 불러요. 기도할 때 항상 부르는데 찬양 가사가 진짜 제 고백이거든요. 4절에 '전엔 나를 위해 일해 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라'라는 가사가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야겠다는 다짐을 담아서 힘차게 불러요. 나처럼 별볼일없는 사람에게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제 남은 삶 동안 더욱 헌신하고 살겠다고 다짐해요.

또 저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를 부를 때마다 항상 선교사로 나가있는 딸이 생각나서 항상 눈물이나요. 지금은 막내딸 부부만 선교 현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도 그 곳에 가서 동역하고 싶어요. 찬양을 통해 이런 비전도 꿈꾸고 있지요.

권사님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시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제가 그동안 기도생활 하면서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기도가 힘이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교만하면 절대 안돼요. 제가 50대 이후에 알게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게 알고 싶고, 또 이 은혜를 우리 자녀들은 저보다 미리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남은 삶을 운행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은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제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니까요.

C채널방송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무엇일까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면서 매일매일 은혜받고 있어요. 이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으면 해요. 이미 미국에서도 시청이 가능한 지역이 있다고 들었는데, C채널방송이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C